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음 5월 26일) 제18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세계태권도대회 성공, 다문화가족이 이끈다

### 24일 열리는 대회와 함께 어울림축제 개최… 가족 1300여명이 자국 선수들 응원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에 맞춰 다문화 가족들의 축제도 함께 펼쳐진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10회 다문화어울림축제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날인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다문화어울림축제는 매년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정해진 세계인의 날(5월 20일)에 개최해 왔다.

올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자국 선수단을 격려·응원하고 다양한 문화로 소통하는 지구촌 행사로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T1경기장 주변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직접 운영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7개국의 14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다채로운 전통문화 소품의 전시·체험공간과 딤섬과 짜조, 링고아메, 롯차, 람냠아이 등 다문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세계전래놀이와 의상, 무지개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기념식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4명에 대한 도지사,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하고 '가족애(愛)' 주제로 열린 사진전과 백일장에서 수상한 다문화가족 20명도 시상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어울림예술제를 통해 다채로운 전통춤과 음악 등을 선보인다.

어울림예술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북도에서 추진한 '다문화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과 자조모임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합창, 풍물, 전통춤, 수화합창, 젬배 등으로 우리 전통 문화와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로 서로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이원택 도 대외협력국장은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태권도인에게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고기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시아 각국의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채워진 다문화어울림축제와 세계태권도대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식탁용 테이블 웨어 집적화 통해 산업화

### 전주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키로
###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 300억원 투자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옹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 미슐랭가이드 등재도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슐랭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슐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쉐프들은 국내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슐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슐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슐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슐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안재용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점검 중"

##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직권조사"

### 사익편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담은 시행령도 추진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실질적 법위반 억지력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도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난 더위를 몰라" 전북을 포함한, 전국 내륙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9일 오후 도심지 바닥 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군산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3억6100만원 지원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하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산대는 사업비 3억6,100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교교육 지원대학은 대입전형, 입학사정관 확충 등 고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입전형을 실시해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중간평가와 신규선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한 62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군산대는 작년 이 사업에 신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면서 그간 추진한 입학전형 및 고교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산=장 현 기자

매일 INDEX

3면 - "유초중고 교육, 교육청 이양을"
6면 - 민간 건축주, '공사비 갑질' 막자